

# “대체 언제까지...” 광주 시내버스 파업 시민들 ‘부글부글’

기존 1천대 102개 노선 하루 8천400회 운행  
노선 절반가량 차질...운행률 59-77% 수준  
시 “80%대”와 차이...“가동 대수만 집계”

“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나요. 파업 전보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배 이상 길어졌어요. 운행률 80%대가 맞나요?”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지 3일째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파업 전 대비 40분 이상 벌어져 출·퇴근길 직장인들과 등·하굣길 학생들이 비상수송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파업 둘째 날이었던 전날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불편 민원은 150여건 이상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9일 접수된 민원 건수는 200여건 이상이었다.

양일 접수된 민원 대부분은 배차 지연에 대한 문의와 불편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불편은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라 시는 시내버스 전면 파업이 시작된 지난 5일부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비상수송대책의 주요 골자와 목표는 파업에



광주 시내버스 파업 3일째인 11일 오후 서구 운천저수지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운행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시는 이로 인해 전날까지 운행률이 80% 이상을 유지했으며, 지난 9일에는 88.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운행률은 가동 버스의 운행 노선 및 횟수 등이 포함되지 않은 채 당시 운영된 버스 대수로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 전 시내버스 운행 대수는 1천대, 운영 노선은 102개, 일일 운행 횟수는 8천400회 정도

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기존 운행 대수 1천대 중 87대가 운행되고 있으니 운행률이 88.7%라는 식으로 집계해 왔다.

하지만 이는 운행률이 아닌 ‘가동률’로 봐야

한다. 실제 운행 횟수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전날만 하더라도 102개 노선 중 7개가 미운행했고 49개는 운행 횟수가 줄어 평상시와 똑같이 운행된 노선은 46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가동 대수로만 산정한 운행률은 실제 운행 횟수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5일과 9-10일 일일 운행 횟수는 각각 4천969회, 6천529회, 6천285회라고 전했다.

이는 파업 전에 비하면 59%, 77%, 74% 수준으로, 광주시가 밝힌 80%대 안팎의 운행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5일에 비해 이번 주 들어 운행 횟수가 늘어난 건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가장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운행 대수로만 운행률을 산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광주시는 시내버스 파업 사태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게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 등 활용 가능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영·장은정 기자

## 곡성서 교통사고 수습 70대 구급차에 치여 숨져

경찰, 40대 운전자 ‘치사’ 입건 예정

곡성에서 교통 사고를 수습하던 70대 운전자가 119 구급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2분께 곡성군 곡성읍 한 도로에서 SUV 운전자 A(70대)씨가 119 구급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를 당하기 전 A씨는 앞서가던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나와 도로 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낸 사고로 중상을 입은 트럭터 운전자 B(50대)씨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들은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워 신고자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가 119 구급차에 치인 사고 현

장 주변은 실제 가로등 등 조명 시설물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곡성소방서 관계자는 “출동 차량에 조향 장치 등 장비 결함 문제는 없었다”며 “당시 운전자는 10년 가까이 해당 업무에 종사한 베테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사망 사고 당시 119 구급차를 운전한 C(40대)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 처자식 살해 40대 가장 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 살인·자살방조 혐의

가족여행을 가던 중 떠난 여행지에서 처자식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지모(49)씨를 구속 송치했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22분께 차를 몰다가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에 빠져 두 아들을 죽게 하고 부인 숨지게 내버려 둔 혐의를 받는다.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지씨는 3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문제로 지난 2월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구속될 경우 처자식의 생계는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막막했던 지씨는 2억원 상당

의 채무에 대한 부담과 함께 조울증을 앓던 아내가 생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토로하자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직전 지씨도 함께 생을 마감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었으나, 막상 바다에 빠지니 두려움을 느껴 열린 창문 사이로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지씨의 신병을 인계한 경찰은 그의 차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통해 새로운 정황이 나타날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 5·18재단, 전남 조롱 유투버 기부금 ‘거부’

잡식공룡, 지역 비하 논란 후 기부

5·18기념재단이 전남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조롱한 유투버의 기부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1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9일 유투버 잡식공룡(본명 왕현수) 측에 500만원의 기부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기부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취지로 받는 것이지만 잡식공룡의 기부 행위는 그 같은 진정성이 없다는 게 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잡식공룡 측이 해당 이메일을 수신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아직 답변이 없어 반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는 재단은 회신이 오는 대로 기부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겠다는 순수한 의도보다는 사회적 논란을 무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판단했다”며 “기부금 반환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잡식공룡은 지난 8일 유투브 채널 커뮤니티에 전남 지역 비하와 정치적 편향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문을 올리고, 재단

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자신의 SNS에 전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88.04%의 득표율을 기록한 선거 결과를 공유하며 “전남 XX 낚음”, “ㅋㅋㅋㅋ” 등의 조롱성 표현을 남겨 논란을 빚었다. /주성학 기자

사고 후 구호조치 無 피해자 사망

법원, 前 보건의료장 ‘금고 4년’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피해자를 죽게 한 전직 보건의료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천수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화순군 화순읍 한 굴다리에서 차를 몰다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인근 하천으로 내려가 하천물을 마시는 ‘이상 행동’을 했다. 이로 인해 당시 A씨가 음주 상태였던 것이냐는 의혹이 일었으나, 관련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사이 현장에 방치되면서 초기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B씨는 병원 치료 중 증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했다. /안재영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가격 ₩ 1,1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가격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가격 ₩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